

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 顯祖實錄探險

갈산공에게 보낸 홍양호 강세황 등 문신들의 답글, 영의정 황보인 배향 광남서원廣南書院 고유문告由文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yson공파 회장

갈산공(葛山公)이 친하게 지냈던 문신은 당연 변암(樊巖) 체제공(蔡濟恭, 1720~1799)이다. 조선후기 영정조(英正祖)를 살았던 선비라던 흠모하고 교류하고 싶었을 남인(南人)의 영수이자 영의정(領議政)인 당대의 최고 문신이 었다.

운곡서원(雲谷書院) 시조(始祖) 봉안문(奉安文)과 상향 묵문(常享祝文)을 지어 보냈다.(글은 8월호 참조)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 1724~1802, 이조 예조 공조판서 대제학)의 답글은 명문장이자 문우(文友)로서의 정이 듬뿍 담겼다. 이계(耳溪)의 글에 나온 정려각 기문은 공(公)의 12대조 죽림공(竹林公, 휘諱 산해山海, 단종端宗의 이모부嫡母父)이 살았던 예전 대죽리에 세워진 정려각 현판에 새겨졌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노재상(老宰相)과 나누었던 두터운 정이 증명되는 문장이기도 하다.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가 갈산공葛山公에게 보낸 답글〉
郭外來別，餘懷耿耿，昨因撥緹，獲承端礼，以審肇夏，旅贈增勝慰加，更面良浩，比來粗造衰年，重擔恐難堪承奈何，旌閣記意外遠來，未暇踐言，今承申托，將欲待此而行禮，盛意動懇，豈不可恨，簿書任德之中，偷隙構成，玆以仰呈，似果可及時耶，容有善書者在傍替寫，特以此入刻，似好耳。

〈국역 권기감權奇甲〉성곽 밖에 오시어 작별한 후로 그리운 회포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저께 보내주신 편지로 기다리던 소식을 받고 초여름 계절에 객지 생활에서 편히 잘 지내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더욱 위로됩니다. 얼굴이 달라진 저는(양호良浩) 공간에 별일 없이 잘 지내기는 하지만 늘어가는 나이에 책임진 일이 많으니 힘들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지요.

정려각 기문은 뜻밖에 멀리서 왔기에 이야기할 시간은 없었으나 지금 이렇게 부탁은 받았고 앞으로 이 기문을 기다려서 예를 이룬다고 하시면서 그 뜻이 매우 간절하니 어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가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서 글을 지어 이렇게 올려드리니 과연 시기가 늦지는 않았는지요? 여기에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있어서 대신 썼으니 특별히 이 글씨로 현판을 각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려각 기문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가 정성을 다해 쓴 편지다.

〈강세황姜世晃의 운곡서원雲谷書院 현판懸版〉
예조판서(禮曹判書)이자 영정조(英正祖)시대 서화가로 이름을 떨친 표안(豹範)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은 운곡서원(雲谷書院)에 걸 현판(懸版, 잠심재潛心齋 영보당永保堂 돈교재頓教齋)을 부임하는 정하연감(淸河縣監) 편에 붙였다.

〈이조판서吏曹判書 이갑李珪의 답글〉
哀擾之中，承拜惠札，憑審秋寒，侍履萬勝，何等慰慰，羣服人，積篋在躬，奄遭不忍堪之憾，冤號穹壤，祗欲湔然，而不得形體苟存，人理都盡，奈何。
슬프고 정황이 없는 가운데.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잘 알았습니다. 날씨가 차가운 가을에 부모님 모시고 만가지로 좋으시다니 뭐가 이렇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기복인[羣服人=1년 복인] 저는 자신이 지은 허물이 많아서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당해서 천지간에 원통한 심정으로 울음을 울게 되니 참으로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구차한 모습 간직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생애가 끝이 났으니 어찌겠습니까?

〈경주부윤慶州府尹 이상도李尙度的 답글〉
頃荷惠顧，至今欣瀉，卽候雨餘，靜履珍衡度，公擾轉劇，支吾不得憫憐何喻，先參判公事蹟文字，奉閱數回，敬仰采切，序述之托，愧非其人，而非但重違動意，載名傳尾，與有榮耀，玆肅忠拙構畢，幸進退之如何。

전번에 왕림해 주신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가슴이 후련합니다. 문안을 드립니다. 비 온 뒤에 편하게 지내시며 건강이 좋습니까? 공무 일이 많아서 감당하지 못하니 괴로운 심정을 어떻게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부탁하신 선대 참판공의 사직에 대한 글을 받아서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보니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서문을 지어달라는 부탁은 [내가] 그럴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 부끄럽지만 부탁하는 것이 간절할 뿐만이 아니라 그 글 끝에 [내]- 이름이 실리는 것이 영광이 되어서 응출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지어 올립니다.

〈문우文友 이정년李廷年의 답글〉
伏惟初夏，侍莫氣力連得萬丈，伏慰且溯無任區區，延年，下來屬耳，路疲成病，方在呻臥，自憐奈何，先集刊本，

自京繕寫以來，此處所質之板，先爲入刻，而始役之初，自多艱窘，憂悶當如何，所托二百板，果已質置，塩烹之節，亦如意順成耶，舊令尹在官時，未及輸來，致此遲滯，雖或緣勢，訝苑則深矣，今則運板之道，實無藉官之勢，是甚悶迫，新鎮營亦有平日雅分，故弟爲作書熟托，以爲運板之計，而鎮營終不如本官，其果輸送有難期必矣，自鎮營若無來問梓板所在之事，則勢將專恃，於執事之極力周旋矣，弟須某条設計，以爲趁即運板之地如何，若未及烹梓，則亦不可觸風運來，想必有所商量者矣，甲山貴宗宅，亦得平安耶，忙未及候候，刻役方張之奇，幸即通報爲望，蔡領府事大監，有刊役所賀禮，故玆肅瞻呈視，至後轉送於甲山貴宗宅及良洞李氏諸宅如何。

마음이 쓰입니다.
초여름에 부모의 빈소를 모시고 잇달아 건강이 좋으시다고 하니 위로되는 마음 건낼 수 없습니다. 저(延年)는 방금 내려왔는데. 노독路毒이 병이 되어서 지금 신을 하며 누워있으니 스스로 가련한 생각이 드는데. 어찌겠습니까? 선대문집 판본[刊本=종이에 써서 나무에 부쳐서 각자할 글씨]은 서울서 잘 써서 갖고 왔는데. 여기에서 판자 나무를 사서 글씨를 새겨야 하는데. 판자에 새기는 일을 시작하는 초기에 저절로 어려움이 많아서 걱정 근심이 되지만 어찌겠습니까? 부탁드린 묵판 200쪽은 과연 준비해서 이미 소금물에 삶는 염판(堔畵 책을 만들 때에 글자를 음각할 묵판木板을 소금물에 삶는 일)은 뜻대로 이루어졌는지요? 전에 영운(令尹)이 있을 때에 운반하지 못해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형편상 그렇게 된 일이지만 마음이 매우 갑갑합니다. 지금에 운반하는 방법은 관정에 의지하는 실로 어려운 일이니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새로 온 진영[鎮營將]과도 평소애 친분이 있으니 그래서 저가 편지를 써서 간밀하게 부탁을 해서 운반을 하도록 해 보겠지만 진영[鎮營將]의 영향이 본관(本官, 그 고을 원님)과 같을 수 없으니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진영[鎮營]에서 판자 운반을 문의해 오지 않는다면 집사께서 힘을 써서 주신하는 방법뿐입니다. 저가 무슨 계획이 생기면 저기에 어떻게 운반이 되겠지만 만약에 소금물에 삶지 못했다면 바랍을 쫓면서 운반할 수 없는 일이니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일입니다. 갑산 귀문[貴門]의 종가덕에도 역시 편안하십니까? 바빠서 안부 편지를 따로 쓰지 못했습니다. 묵판에 글을 새긴다는 소문을 기다릴 뿐입니다. 재영부사대감[蔡濟恭樊菴領府事大監]이 각자하는 곳에 축하례의 글을 보내셨기에 이렇게 써서 올리니 보시고 갑산 귀문 종가집이나 양동이 써 여러 집에도 알려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좌부승지경경연참찬관左副承旨兼經筵參贊官 주춘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 진성真城 이만유李晩由 갈산공葛山公集 발문跋文〉
東都有隱君子，日葛山權公諱宗洛，竹林先生十二世孫也，先生之貞忠大節，炳如日星，而覆盆之冤，得公於百年之後，地贈伸釋，始無餘憾，公非所謂賢祖之肖孫耶，鸚鵡之成林，又何其靈異哉，公之孫宜一，衰粹得散逸之文，將鉞木而壽其傳，請余識其後，爲其有先世戚契也，余雖癯廢，亦豈無意於公哉，就聞其所撰家狀，令人起敬者多，如廬墓時，諭虎自退，孝之感也，祭壇時祈雨有驗，誠之孚也，爲義旅之帥，晉退有法，所抱之卓也，夫士之有志行，而負經綸之鑑者，不得於時，則山林而已，公豈不得於時，而山林者乎，吁可敬也，是以書，

경주에 남모르는 군자가 계셨으니 갈산(葛山) 권공(權公) 휘(諱)는 종락(宗洛)이시니 죽림(竹林) 선생 12대손 이시다. 죽림(竹林) 선생의 곧은 충성과 큰 절의는 태양 같이 빛나는 분이었으나 왕권의 난리에 충절이 알려지지 못한 복분지원[覆盆之冤, 충절이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 원한]을 갈산공께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증직을 받고 억울함이 해소되어 처음으로 애절한 원한을 풀게 되었으니 갈산공은 남들이 말하는 훌륭한 조상의 착한 후손이시다. 은행나무가 무성한 것은 그 또한 영감이 있고 기이한 일이다. 갈산공의 증손자 의림[宜一]씨가 공[公]이 남기신 글을 수집해서 묵판에 새겨서 오래 전하려고 하면서 나에게 후지[後識=跋文] 부탁을 하니 그의 선대 때에 책본이 있는 처지라 내가 비록 늙고 병들었으나 공에 대한 존경하는 뜻이 없겠는가? 그분에 대해서 쓴 가정[家狀]을 읽어보니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려묘[廬墓]살이 할 때에 호랑이를 타일려서 스스로 물리개게 한 것은 효심의 감동이었고, 제단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내렸으니 정성에 대한 믿음을 주신 것이고, 의병대장이 되어서 행군에 법도가 있었으니 도량이 뛰어난 분이시고 선비로서 품행이 있었으니 포부와 경륜이 쌓인 분이시고 때를 만나지 못했기에 산림은사[山林隱士]가 되었을 뿐이니 공은 어찌서 산림은자가 되었을까? 참으로 탄식이 되고 존경이 가는 분이시니 이렇게 쓰다.

갈산공(葛山公)은 경주 운곡서원(雲谷書院) 신건(神建)에서 12대조 충민공(죽림竹林)의 신원(伸冤)까지는 10건의 상소문(上疏文)에 영남(嶺南) 유생(儒生)들의 수결을 받기 위해 보낸 서간문(書簡文, 600통 이상 추정)을 오롯이 붓으로 썼다.

보내는 편지마다 반간물(伴簡物, 편지와 함께 가는 선물)을 붙여 보냈다.

조선(朝鮮)을 살았던 유현(儒賢)들의 유일했던 소통 방식은 서간문(書簡文)이다. 편지를 주고받을 땐 지역 특산물(特産物)을 반간물로 곁들여 보내는 멋진 풍속이 있었다. 갈산공(葛山公)은 부피가 작고 가벼운 동해안 돌김을 선호(選好)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서간문 한 장에도 반간물(伴簡物)을 딸려 보내는 정성이 하늘을 찔렀다.

10차례의 상소문에 서명한 선비도 천 명이 넘었는데가 하면 교류의 폭도 교남(嶠南, 영남嶺南을 높여 부르는 말)을 넘어 한양(漢陽)까지였다. 당대를 대표하는 서화가이자 예조판서(禮曹判書)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을 비롯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 대사헌(大司憲) 민태혁(閔台赫), 경주부윤(慶州府尹) 김광공(金光默),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 이만유(李晩由) 진사(進士) 심봉석(沈鳳錫) 이동영(李東英) 등 갈산집과 보목유첩에 오른 문신(文臣) 시인(詩人) 묵객(墨客) 유현(儒賢)도 상당수에 이른다.

영의정 황보인(皇甫仁) 배향(配享) 광남서원(廣南書院) 고유문(告由文)은 그 시대의 참상(慘狀)이 명문장으로 서술(敘述)됐다. 포항시 구룡포읍 성동, 해안(海岸)을 비켜 가는 양지쪽에 세워진 광남서원(廣南書院)은 충정공(忠定公, 황보인皇甫仁 1387~1453 태종太宗 14년 친시문과급제親試文科及第, 영의정領議政)과 충정공(忠定公)의 두 아들(참판공參判公, 휘諱 석錫/ 직장공直長公 휘諱 喜欽)을 배향하기 정조(正祖) 15년(1791) 창건(創建)됐다.

〈영의정領議政 황보인皇甫仁 배향配享 광남서원廣南書院 고유문告由文〉

계유정난(癸酉靖難 1453년 단종端宗1년 수양대군首陽大君이 김종서金宗瑞 황보인皇甫仁을 제거, 정권을 장악한 난)이후 구룡포 바닷가로 피신한 후손들이 운곡서원보다는 6년 후에 창건됐다.

창건 당시에는 장기현(長鬐縣)이었다. 장기현은 경주부(慶州府)의 속현(屬縣)이자 갈산공이 살았던 강동 국당(菊堂)과 한나절 거리에 위치했고 단종(端宗) 사화 이후 같은 가치관(價值觀)을 가졌던 후손들간 형제 이상의 정을 나누었으니 먼저 서원(書院)을 창건(創建)했던 갈산공(葛山公, 권종락權宗洛)에게 경원담을 듣고 현관(獻官)으로 초정했다.

광남서원고유문廣南書院告由文 황보인皇甫仁과 두 아들 참판공參判公 직장공直長公 배향위配享位 고유문告由文

位處元輔，任重柱石，志決熊魚，身甘鋸鑊，二子並命，一家三節，聖主繼繼，曠感忠烈，既配永院，遂享越壇，懿茲馨城，洵竊且寬，雲仍優誠，章甫同聲，爰始建祠，予以妥靈，月流規機，波連錦水，牲肥酒香，永垂千饌，

직책은 정승이시고 책임은 나라의 기둥이었습니다. 죽음의 뜻을 각오하고 나라에 몸을 바치면서 두 아들과 목숨을 같이 했으니 한집에 충절이 세 뿐입니다. 훌륭한 임금님이 계승하시어 오래된 충절에 감격하시고, 이미 영원[永院]에 모시었고, 영월에 설단을 해서 향사를 올리고 있으며, 이 장기 고을에 지은 서원은 참으로 아득하고 넓습니다. 자손들이 정성을 모으고, 사람들이 뜻을 같이해서 이 사당을 처음으로 세워서 혼령을 편히 모시려 합니다. 영월의 자규루에 달이 여기에 비치고 한강의 물이 여기에 이어집니다. 희성과 향기로운 술로 천추에 이어갈 것입니다.

황보참판공皇甫參判公
忠定長胤，卿坐亞秩，家國滄桑，身殉節烈，父子三人，祭祀一體，儀彼陵壇，薦此誠禮。
충정공의 장남이시고, 벼슬은 아경[亞秩, 참판을 높여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나라에 큰 난이 일어나서 충신열사로 순직을 하셨으니 삼부자 분을 똑같이 제사 올립니다. 영월 장릉 단소의 의식으로 이 예를 올립니다.

황보직장공皇甫直長公
是父之子，是兄之季，危忠卓節，一家咸萃，壇侑既并，鄉祠載飭，風聲永樹，百世勿替。

아버지에 이 아드님, 이 형님에 이 아우님, 높은 충성심과 뛰어난 절의가, 한 집에 다 모였습니다. 장릉 단소에 이미 같이 모셨는데 이 사당에도 같이 모셨으니 명성은 영원히 이어갈 것이고, 백 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산공이 지어 충정공(忠定公)과 참판공(參判公) 직장공(直長公)에게 올린 고유문(告由文)엔 계유정난(癸酉靖難)에서 시작된 시대적 참상(慘狀)과 자손(子孫)들에게 닥친 비사(秘史)는 물론 영월 장릉(莊陵, 영월의 단종 묘) 인근에 서진 단소(壇所, 헛무덤)에서 제향을 불행하지만 이 곳에서도 그토 제향 의식대로 영월히 모실 것을 다짐하는 명문의 글이었다.

다육이 경주부(慶州府) 선비가 영의정(領議政) 등 당대의 최고 문신 체제공(蔡濟恭) 강세황(姜世晃) 등과의 교류(交流)는 조선 후기 역사를 통털어 갈산공이 유일하다. 〈자료출처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죽림실기竹林實記, 안동권씨좌yson공파보安東權氏佐尹公派譜, 운곡서원지雲谷書院誌, 갈산집葛山集, 보목유첩寶墨遺帖〉

안동권씨 경주종친회 화수가 <2>



건원健院하여 타령妥靈하니 묘호廟號는 추원사追遠祠요
강당講堂은영 보당報堂이요 동東에는 돈교敦敎齋요
서西에는 잠심潛心齋요 남南에는 검심문見心門이라
시조始祖부군府君 봉안봉제 동서東西배향配享 정위定位하니
동무東廡에는 죽림위竹林位요 서무西廡에는 귀봉위龜峯位라
묘우강당廟宇講堂 동서제東西齊와 주소廚所의 좌우청사左右廳舍
규모規模절規模凡節 광려廣麗터니 세대世代가 침원侵遠이라
인문人文도 손익損益이라 철원筵院令을 당당하오니
고종무친高宗戊辰 비운不運일세 계묘년癸卯年 설단 設壇후에
세일천향歲一薦享 소략蔬略도다 당우堂宇는 인공人工이라
웨성歲成이 있진마는 산천山川은 지리地理이라
증감增減이 있을소나 명랑明朗한 의구풍경依舊風景
회고심懷古心이 간절토다 풍경風景을 살펴보니
잔잔류수潺潺流水 흐르난물 불사주야不捨晝夜 원천源泉이요
울울창창鬱鬱蒼蒼 솟는술은 지지간반함만취遲遲澗畔舍 羣라
절벽상에 사조암思祖巖은 출입구出入口에 수문守門이요
비류폭포飛流瀑布 자용추湧湫는 세심대洗心殆의 청류清流로다
폭포상瀑布上에 유연정 悠然亭은 노소유현老小儒賢 서식棲息이요
원정변院廷邊에 압각수鴨脚樹는 감습유생 張襲儒生 행단杏壇이라
압각수鴨脚樹의 사적事蹟보면 갈산공葛山公 의수식手植이라
금성단하錦城壇下 압각수鴨脚樹를 유일월전六月炎天 전지剪枝하여
순흥경주 順興里에 一朔만에 래식來植하니
죽림竹林선생 충렬감응忠烈感應 후손後孫성誠에 살았도다
만천기상萬千氣象 자용풍風景은 일구난설一口難說 생략省略하고
제제다회濟濟多會 종족인家族人은 거주세덕居世德 알아보세
국당리菊堂里 거주죽居住族은 좌yson파佐尹派에 죽림후라
단종조端宗朝 사화시土禍時에 죽림선생 순절사殉節事로
금고사변禁錮徙邊 죄罪를 당當해 죽림자자子손 판관판官判公이
경주에 유재留在하사 오세손五世孫에 구사제九思齊라
임란창의壬亂倡義 훈공勳功으로 첨정제수金正除授하옵시고
남정여씨藍田呂氏 향약鄉約으로 규정풍속糾正風俗 유적有績하사
유풍遺風이 상전尙傳이라 그 자손이 세거世居하고
강서두류江西斗流 거주죽居住族은 향일제向日齊의 자손이라
죽림선생 계씨李氏로서 금고명禁錮舍를 당한후에
연일延日에 유재留在하사 위국爲國에 규業충심忠心을
종신향일終身向日 하옵시고 그 현손玄孫에 귀봉龜峯선생
문원공文元公의 제자로서 역전삼군 歷典三郡 선정비善政碑는
협천군민陝川群民 송덕頌德이요 한강문인寒岡門人 노헌공魯軒公은
귀봉공의 주손胄孫이라 현감縣監의 선적善績으로
동의보감東醫寶鑑 어사御賜로다 노당리魯堂里 유거留居후에
그 자손이 세거터니 귀봉현손 퇴암退庵후는
두류리斗流里에 설립設業한후 귀봉공의 종지손宗支孫이
그곳에서 세거하고 강서홍천江西洪川 세거족은
매와공梅窩公의 자손이라 귀봉공의 종자從子로서
임란창의 훈공으로 우부승지右副承旨 증직贈職이요
홍천리 호계사虎溪祠에 묘향백제廟享百世 하옵시고
그자손이 세거로다 아일리也日里 거주족은
귀봉공의 자손이요 강당다산거주족은
오모제五慕齊의 자손이라 죽림공 오세손五世孫에
구사제九思齊의 종씨從氏이다 임란순절壬亂殉節 하신후에

권행안 편집국장
(다음호에 계속)

충장공 권율장군 이치대첩 기념행사 참가 후기

지난 8월 26일 충남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 이치고개 아래에 위치해 있는 충장사에서 권율장군 이치대첩제가 성황리 봉행되었다. 특히 진산면 주민들로 구성된 진산역사연구회에서 처음 주관한 행사로 사전에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한 사생대회와 배일장은 이치대첩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안동권문에서는 서울에서 대항버스 1대를 대절하여 참석하고 순천종친회와 전주완주종친회 등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일부 종친회에서는 일기가 불순하여 참석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날 이치대첩기념제에서는 안동권문을 대표하여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은 이치전투가 당시 임진왜란의 전세나 이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선조들의 나라 지키는 정신을 깊이 연구하고 앞으로 연구회가 크게 발전하길 바란다

이번 이치대첩제에 참석하는데 추밀공파종회에서 찬조금 100만원, 추밀공파연전공 종중(회장 권기택)에서 30만원, 추밀공파 정현공계 오현공 종중(회장 권용학)에서 50만원, 전주완주종친회(회장 권이수)에서 20만원을 찬조하였다.



찬조해 주신 추밀공파종회와 연전공 종중 그리고 오현공 종중 및 전주완주종친회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권경일 추밀공파 사무처장은 이치대첩제에 참석하는데 여러 중중이 찬조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고 당일 아침 김밥까지 준비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었다. 권성기 전 금산종친회장은 종친들이 식사를 편안하고 깨끗게 할 수 있도록 식당 자리를 맡아주셨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참석하여 주신 종친여러분께도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잊을 수 없다. 권행안 편집국장